



원주불교청년회 '자아성찰 위한 3만배 기도정진' 입제현장

남을위한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생활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또 인과에 의해 그 행복이 내게로 전부 다 오는 것이다.”

‘가야산 호랑이’로 불리며 수많은 후학들을 제집했던 성철 스님은 자신보다는 남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남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연기(緣起)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잘 살수 있게 한다는 가르침이다.

성철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강원도 원주 지역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원주불교청년회(회장 조대호)는 100인이 100일 동안 매일 300배를 릴레이로 진행하는 ‘자아성찰을 위한 3만배 기도정진’을 3월 30일 시작했다.

100인이 100일 동안 매일 릴레이 300배 300염주에 상생 염원 담아 간절히 정진

■ 시작할 때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

3월 30일 저녁 7시. 원주전을 마치고 있는 원주불교신도회관에 삼삼오오 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직장을 마치고 달려오는 중년의 신사와 젊은 청년, 그리고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온 주부 등이 넓지 않은 법당을 순식간에 메웠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했지만 삼시간에 법당은 100여명의 불자들이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렇게 신도회관을 찾은 사람들은 바로 ‘자아성찰을 위한 3만배 기도정진’에 동참하는 불자들이다.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이번 기도정진은 원주불교청년회 일꾼들의 의기투합에서 출발했다. 지난 2월 11일 원주 연화사에서 108배 정진을 했던 청년회원들은 원주 지역 불자들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고, 의견을 모은 결과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장을 열기로 한 것이다. 원주불교청년회는 또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300염주도 마련했다.

원주불교청년회 조대호 회장은 “취지를 들은 불자들은 한결같이 동참의 사를 밝혔고 지금은 정원이 넘쳐 동참하지 못한 불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법당에 도착한 불자들은 정성껏 적어 온 자신의 발원문을 한데 모았다. 황정석(58·원주시 일산동씨)은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부처님이 됐으면 한다”며 “300배를 하는 6월 24일에는 부인과 함께 불교회관에 와서 정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한다.

유정순(74·원주시 중앙동씨)은 “몸이 아픈지 하지만 아직 장가를 못간 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는 5월 31일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유종우(60)씨와 장만복(55)씨도 “원주 지역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원주 지역불자들이 진정한 ‘대승보살’로 거듭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는 원주불교사암련 회장 경혜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시작할 때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마음과 같다고 설하셨다”며 “100일의 정진 기간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원만하게 회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100일후 어떻게 변해 있을까?

입제 법회가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이 원만 회향을 발원하는 108배를 시작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인지 108배를 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에서 굳은 의지가 묻어났다. 15분만에 108배가 끝나고 3만배 정진의 출발을 알리는 원경상(48)씨의 300배가 계속됐다.

원주 지역에서 5년 전부터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씨는 원주 불교청년회 회장을 2번이나 역임한 원주청년불교의 산 증인.

“절만큼은 자신 있는” 원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다른 불자들은 이미 자리를 땀지만, 청년회 후배들의 격려에 원씨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3만배 정진의 출발테이프를 잘랐다.

원씨는 “원주 지역 신행단체가 16개에 달하지만 따로 활동을 하다보니 역량이 잘 모아지지 않았다”며 “이번 정진을 계기로 기복(祈福)이 아닌 작복(作福)의 풍토가 지역불교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란다”는 바람까지 토로했다.

청년회 남산희 재무부장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진한다면 모두의 바람대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7월7일 100일간의 기도대장정을 마치고 난 후 자신과 이웃이 어떻게 변해있을까? 100명의 동참자들은 벌써부터 가슴이 뻐다.

원주/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절 허기진 반아심경을 봉독하며 마음을 모으는 불자들.



한 불자가 발원문을 함에 넣고 있다.



원주불교청년회 조대호 회장이 3만배 기도정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혜 스님이 300염주를 참가자에게 전하고 있다.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http://ad.buddhapia.com>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in@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 광고 신청도 쉽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 부다피아, 부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 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부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부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대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콘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연재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